



통계청, 장래인구추계와 생명표 발표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 2010~2060」에 따르면, 우리나라 중위 가정¹⁾의 경우 총인구 규모 정점이 2030년이고, 고위 가정의 경우 2041년, 저위 가정의 경우 2016년인 것으로 나타남.

- 중위 가정 총인구는 2010년 4,941만 명에서 2030년 5,216만 명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60년 4,396만 명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.
-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, 국제순유입을 가정한 고위 가정의 총인구는 2041년 5,71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 5,478만 명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.
- 낮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 가정의 경우 2016년 5,002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여 2060년 3,447만 명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.

■ 생산가능인구(15~64세)는 2016년 3,704만 명(인구의 72.9%)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 2,187만 명(인구의 49.7%)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,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- 생산가능인구는 진입 및 은퇴 규모, 국제이동, 유소년인구 생존율 등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며,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~28년에 연평균 약 30만 명씩 급속히 감소한 후 동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.
-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2년 36.8명(노인 16.1명)까지 낮아진 후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101.0명(노인 80.6명)으로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됨.

■ 통계청이 발표한 「2010년 생명표」에 따르면, 2010년 전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0.8년으로 전년대비 0.2년 증가함.

1)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래 인구변동요인(출산, 사망, 국제이동) 수준을 고위·중위·저위로 설정하여 추정이 이루어짐.

- 201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77.2년, 여성이 84.1년으로 전년대비 남자는 0.2년, 여자는 0.3년 각각 증가하였으며,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.9년 더 길게 나타남.
- 또한, 2010년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이 28.3%, 여성이 17.0%로 전년대비 남성은 0.2%p, 여성은 0.3%p 높아짐.
- 한편, 201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OECD회원국 평균보다 남성은 0.5년, 여성은 1.8년 더 긴 것으로 조사됨.

(장래인구추계 2010~2060 등, 통계청, 12/7)